

말레시아 이경근선교사 선교소식

말레시아 선교를 위하여 주안에서 선교의 동역자 된 교회와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드디어 말레시아 국경이 열린다

지난 3여년 가까이 코로나로 강한 봉쇄 정책을 펴던 말레시아도 이제 서서히 코로나와 함께 사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경도 개방하고 거리두기도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말레시아는 엄격한 코로나 정책으로 외국 관광객도 거의 찾아오지 않고 하여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말레시아 관광청 주관으로 6월 23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몇도시에서 보름동안 말레시아 방문을 위한 홍보 행사를 하였습니다. 말레시아 관광지 소개와 함께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며 전통춤 공연도 펼치면서 말레시아 관광을 요청합니다.



지난 6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말레시아 관광행사를 벌이고 있는 장면

원주민 교회도 다시 예배를 시작 하였습니다.

원주민 교회들도 거의 2년 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맘이 참 아팠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밀림속이고 통신 시설이 안 되어 온라인 예배조차 할 수 없었던 원주민 교인들도 다시 교회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절실히 느끼는 기간 이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슬람을 국교로 삼는 나라라는 환경에서 어렵게 세워진 말레시아 교회들의 문을 폐쇄한 지난 2년간의 공백이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의 자리로 설수 있도록 기도 합니다



보티원주민교회

지난달에는 우리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선교지 가서 살아온 아이입니다. 어린 시절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필리핀 마닐라, 민다나오, 세부, 그리고 말레시아 페낭 등 수많은 학교를 옮겨 다녔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잘 커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1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 아들은 미국으로 돌아가고 며느리는 미국 비자를 기다리면서 저희와 함께 잠시 귀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무사히 비자를 잘 받아 남편 곁으로 갈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아내인 신경미 선교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상담사 1급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선교사역에 잘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1, 이제 예배를 다시 예배를 시작한 말레시아 교회와 원주민 교회들이 믿음위에 굳게 서 갈수 있도록
- 2, 결혼한 아들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며느리의 미국 입국 비자가 잘 해결되어 남편 곁으로 갈수 있도록
- 3, 말레시아를 비롯하여 다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변이가 겨우 다시 시작한 선교를 방해하지 안 토록
- 4, 이슬람 나라인 말레시아에서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 5, 우리부부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여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 하도록

2022년 7월 27일 말레시아선교사 이경근, 신경미 선교사